경기	○ 서울 제조업부문 감소세 유지 - 4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7.7(2005=100)로 전년동월대비17.6% 감소 ○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 4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부문이 5.6% 증가하고 대형마트부문이 4.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5.0% 증가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0.6%p 상승, - 5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함 - 돼지고기, 휘발유, 전세 및 월세 등 대체적으로 전월대비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하락 - 5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7%p 감소한 62.6%로 남자는 74.5%, 여자는 51.5%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5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천명(-0.2%) 감소한 4,970천명이며, 전월대비로는 21천명(0.4%) 증가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5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3.7%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는 0.7%p로 보합
부동산	○ 4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4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4,23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5.0% 증가 - 공공부문은 신규주택 공사부분의 발주 감소로 24.5%가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 공사부문의 발주 증가로 60.5% 증가 ○ 5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는 완화 - 5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9% 상승한 가운데 강북지역이 1.1% 상승해서 전월(2.4%)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됐고, 강남 지역도 0.6%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완화 ○ 5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완화로 안정 - 5월 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고 강북지역이 0.4%, 강남지역이 0.3% 상승하며 전월에 비해 상승세가 완화
금융	○ 4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소폭 증가 - 4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51조 6,922억원이고, 전월대비 8조 5,678억원의 소폭 증가 ○ 4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87개로 전월대비 1.1%(18개)증가 ○ 5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75개로 전월보다 4개 감소 ○ 서울시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 - 5월 서울의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정밀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 컴퓨터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31.0% 증가 - 5월 서울의 수입은 LPG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석유제품, 철강판 등 원자재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당분간 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Ⅰ 생·산 Ⅰ

4월 경기는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 및 서비스업 회복 등 상승 기조를 이어감

- 4월 중 광공업부문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서비스업 부문도 증가세가 다소 회복됨
- 광공업 생산은 수출 호조 등으로 증가세 지속, 재고는 반도체 재고 영향 등으로 지난달보다 확대됨
- 광공업 생산은 전기장비, 음식료품, 선박 등의 호조로 지난달에 비해 1.0% 증가 하였음
-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을 중심으로 10.5% 증가하여 두자릿수 증가세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 서비스업 생산은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에 비해 0.2% 증가하였음
-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5.9% 증가함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8년 4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7.7(2005=100)로 전년동월대비17.6% 감소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의약품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은 대폭 감소, 경공업부문 소폭 감소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0.8% 감소하여 지난 달 보다 감소세가 증가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함
- 세부업종별로 의복 및 모피(9.6%)는 증가하였으나 금속가공(-54.8%), 기계장비(-27.1%)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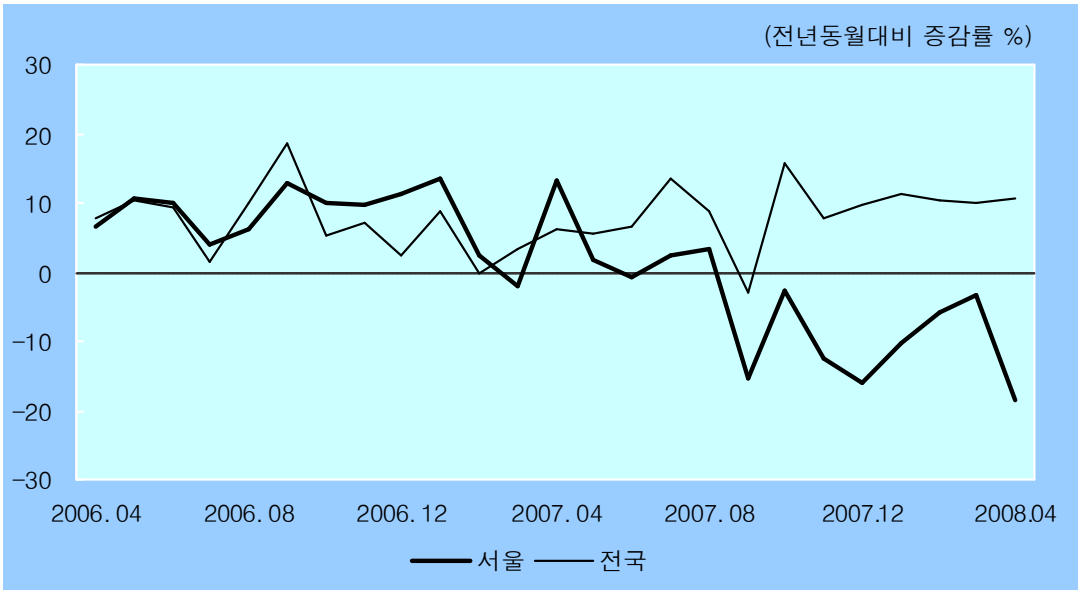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4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전년동월비	전국		6.2	9.6	11.3	10.2	10.1	10.5
			(−1.6)	(−3.8)	(2.2)	(−11.8)	(15.1)	(−1.3)
	서울 (제조업)		13.2	−15.9	−10.3	−5.9	−3.3	−18.6
			(8.8)	(−2.4)	(−3.8)	(−11.3)	(13.1)	(−8.5)
		중공업	33.4	−27.0	−25.3	−18.6	−14.3	−40.8
			(20.5)	(5.5)	(−11.8)	(−7.1)	(5.6)	(−16.7)
		경공업	0.7	−6.5	1.5	4.4	4.1	−0.6
			(0.8)	(−7.0)	(1.6)	(−13.8)	(17.7)	(−3.8)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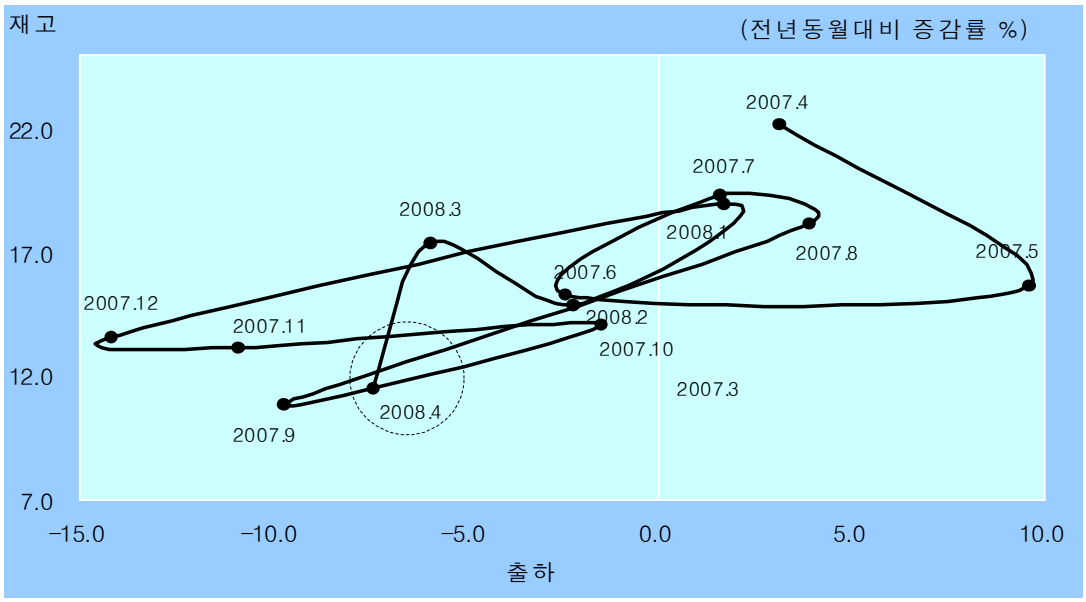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4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지역의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01.4으로 전년동월대비 6.5% 감소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출하는 전년동월비 감소하고 재고도 전년동월비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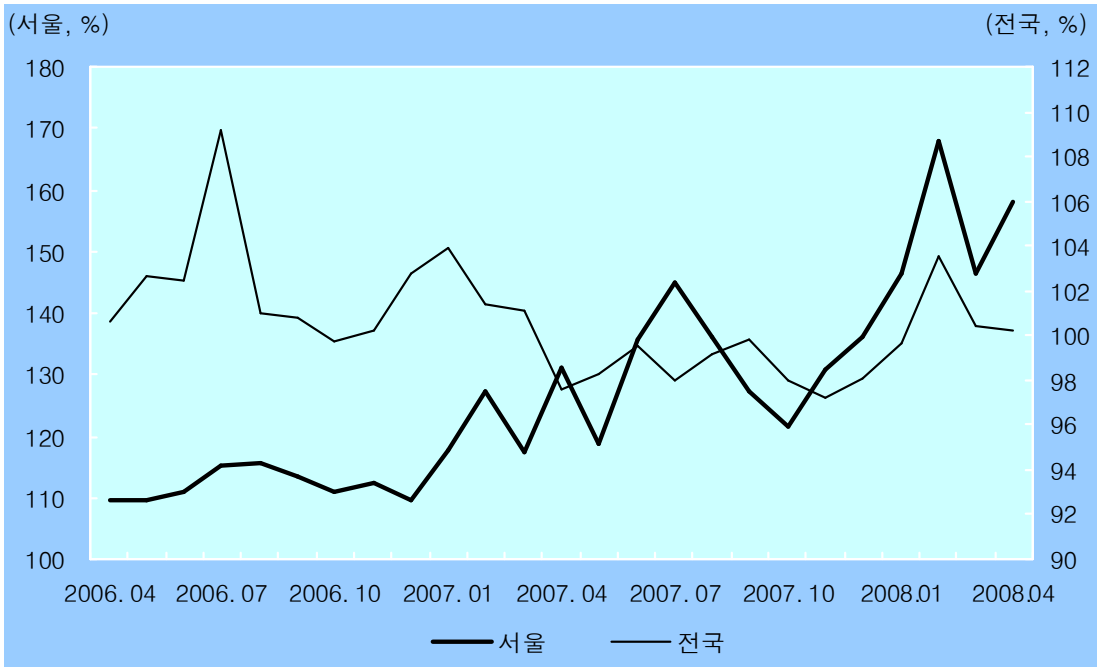
- 4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00.2%로 전월대비 0.2%p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58.0%로 전월대비 11.6%p 증가함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식료품,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24.2%p 상승한 172.5%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5.1%p 증가한 149.1%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4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재고율	전국		97.6	98.1	99.6	103.5	100.4	100.2	-0.2
	서울		131.2	136.2	146.3	167.9	146.4	158.0	11.6
		중공업	138.9	123.1	148.4	168.7	148.3	172.5	24.2
		경공업	128.5	143.6	144.4	167.4	144.0	149.1	5.1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출하 원지수)×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비 |

4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판매액 증가

- 4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로는 10.9%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차량용연료, 서적·문구용품 등 비내구재의 비중이 커진 반면 식료품, 의류 및 신발, 승용차 등은 다소 축소되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 4월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은 1조 3771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함
- 혼수용 화장품·귀금속류 및 이사 시즌 등으로 실내 인테리어용품류의 준내구재 기타 상품군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 결혼시즌 성수기로 혼수용 및 여름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류와 여름용 샌들류의 신발 상품군 판매호조로 4.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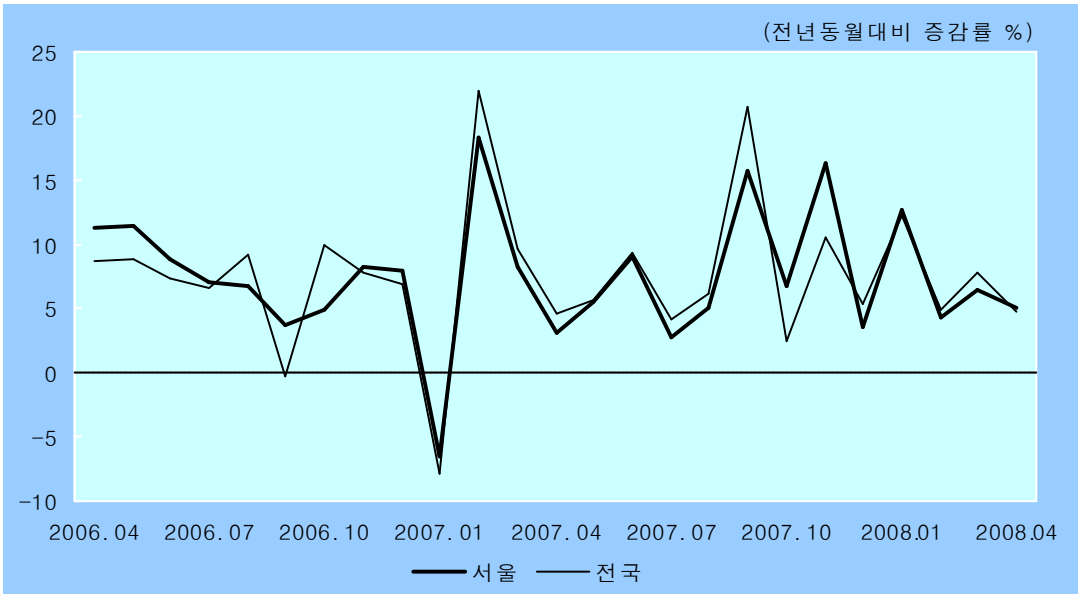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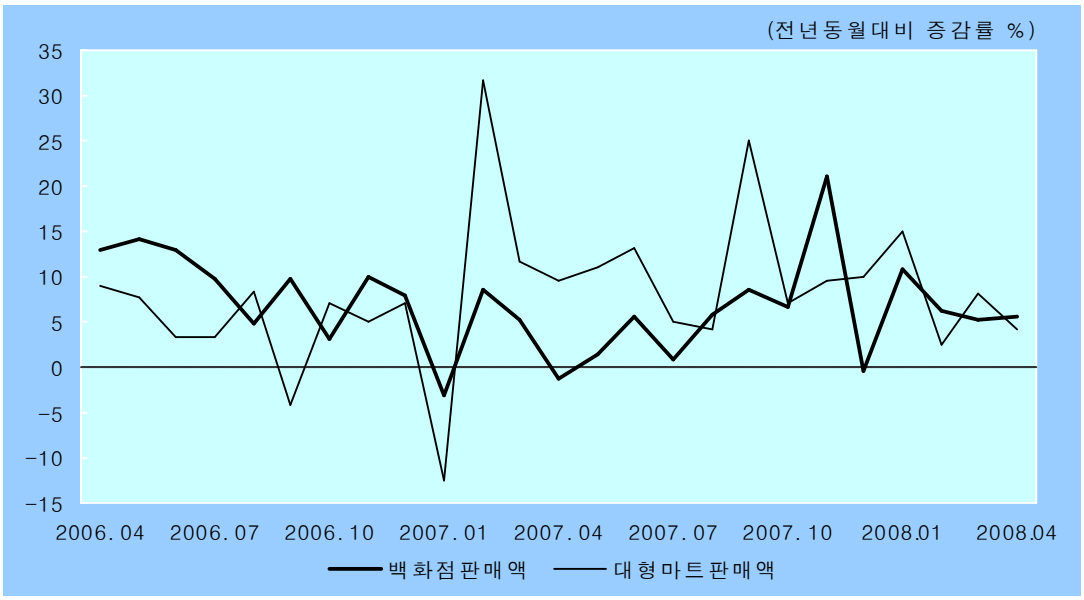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4월	12월	1월	2월p	3월p	4월p
판매액	전국		3838.5 (4.6)	4600.4 (5.3)	4126.9 (12.2)	4134.3 (4.9)	4190.5 (7.8)	4018.0 (4.7)
	서울		1311.6 (3.1)	1609.5 (3.5)	1411.3 (12.6)	1326.3 (4.3)	1398.2 (6.5)	1377.1 (5.0)
		백화점	750.8 (−1.3)	961.4 (−0.5)	803.3 (10.8)	701.7 (6.2)	777.8 (5.2)	793.2 (5.6)
		대형마트 (할인점)	560.8 (9.6)	648.1 (10.0)	608.0 (15.0)	624.6 (2.4)	620.4 (8.2)	584.0 (4.1)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2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가 |

5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5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4.9%, 전년동기대비 4.0% 각각 상승
- 전월에 비하여 통신은 하락하였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복·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교통, 외식·숙박 등이 상승하였음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5.9% 각각 상승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2005=100)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상승함
- 주요도시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은 전도시 평균(0.8%) 보다 낮게 상승함
- 광주,대전, 울산은 전도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 하였으며, 부산, 대구는 보합, 인천은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음
- 돼지고기, 상추, 조기 등의 농축산물과 경유, 휘발유, 세탁비누 등의 공업제품은 크게 상승하였으며, 전세 및 월세 등의 집세와 도시가스 등의 공공서비스, 숙박료, LPG(자동차용), 단체여행비 등의 개인서비스 부문은 각각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2% 상승함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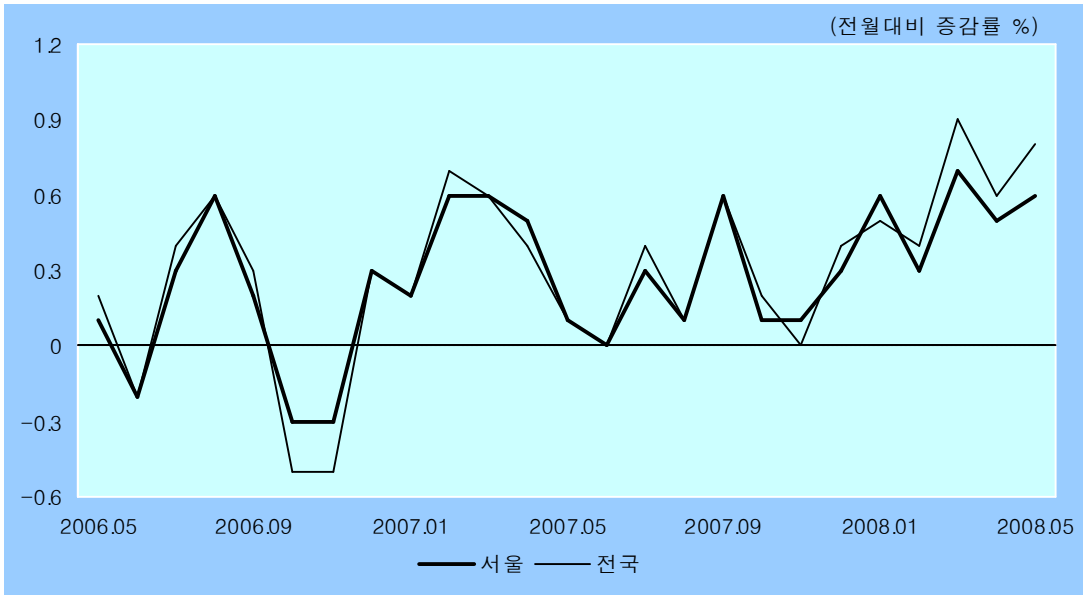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전국:1.0%), 전년동월대비 4.7%(전국:5.9%) 각각 상승함
-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0%(전국:-2.1%), 전년 동월대비 5.1%(전국: -3.9%) 각각 하락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비	전국		0.1 (2.3)	0.4 (3.6)	0.5 (3.9)	0.4 (3.6)	0.9 (3.9)	0.6 (4.1)	0.8 (4.9)
	서울		0.1 (2.5)	0.3 (3.4)	0.6 (3.8)	0.3 (3.5)	0.7 (3.6)	0.5 (3.5)	0.6 (4.1)
	상품 성질별	상품	−0.1 (1.6)	0.5 (4.2)	0.8 (4.8)	0.1 (3.8)	0.2 (3.9)	0.8 (4.3)	1.5 (5.9)
		서비스	0.2 (3.1)	0.2 (3.1)	0.4 (3.2)	0.4 (3.2)	0.9 (3.2)	0.3 (3.1)	0.2 (3.1)
	생활물가		0.2 (3.5)	0.4 (4.6)	0.4 (4.9)	0.3 (4.4)	0.9 (4.3)	0.5 (4.1)	0.7 (4.7)
	신선식품		−2.7 (4.6)	−0.8 (6.5)	−1.5 (4.3)	−0.2 (−2.5)	−4.4 (−5.1)	−1.0 (−6.7)	−1.0 (−5.1)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제·활·동·인·구 |

5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하락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보합

- 5월 15세 이상 인구는 39,54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3천명(1.0%)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345천명으로 94천명(0.7%)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347천명으로 61천명(0.6%) 증가하였음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중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24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명(0.9%), 전월대비 4천명(0.0%)이 각각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5,1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0.3%)이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14천명(0.3%)이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년동월대비 0.7%p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는 0.2% 증가하였음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전국	1.1 (0.8)	0.9 (−2.0)	0.7 (−1.1)	0.7 (−0.1)	0.6 (1.7)	0.7 (1.6)	0.6 (0.8)
	서울	0.7 (0.5)	−0.1 (−1.2)	−0.1 (0.0)	0.2 (−0.7)	1.0 (1.1)	−0.1 (0.0)	−0.3 (0.3)
	남자	0.4 (0.2)	0.2 (−1)	0.0 (0.0)	−0.3 (−0.5)	0.2 (0.9)	−0.4 (0.2)	0.1 (0.7)
	여자	1.1 (0.8)	−0.5 (−1.3)	−0.3 (0.0)	0.9 (−0.9)	2.1 (1.4)	0.4 (−0.2)	−0.8 (−0.4)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62.7	61.0	60.3	60.1	61.1	62.0	62.4
	서울	63.3	62.3	62.2	61.8	62.4	62.4	62.6
	남자	75.2	73.9	73.6	73.2	73.8	74.0	74.5
	여자	52.1	51.5	51.4	50.9	51.6	51.5	51.3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5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8년 4월 취업자는 39,54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3천명(1.0%)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3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4천명(0.7%)증가하였고, 여자는 10,347천명으로 61천명(0.6%)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 40대, 60세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음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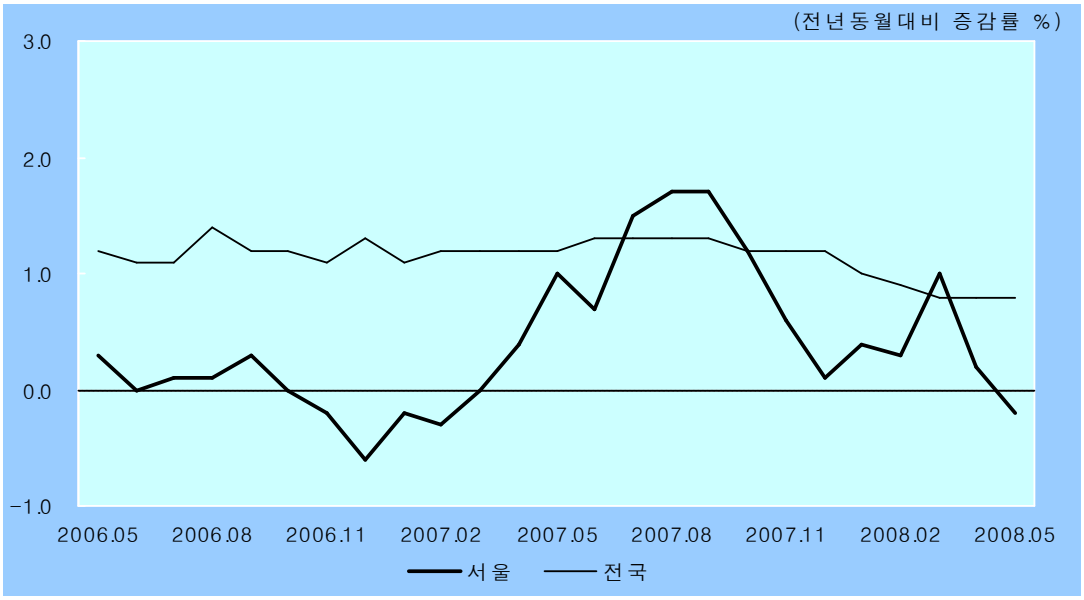
- 2008년 5월중 취업자는 4,97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0.2%)이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21천명 (0.4%)이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65천명, 여자는 2,1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6천명(0.2%)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15천명(-0.7%)이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 남자는 30천명(1.1%)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9천명(-0.4%)이 감소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음식숙박업 13천명(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천명(0.1%)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1천명 (-22.6%), 제조업 21천명(-3.0%), 건설업 2천명(-0.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3천명(-0.1%)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농림어업 0.2천명(5.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1천명(2.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제조업 16천명(0.8%), 건설업 4천명(0.8%)이 각각 증가하였고, 제조업 5천명(-0.7%), 도소매·음식숙박업 5천명(-0.4%)이 각각 감소하였음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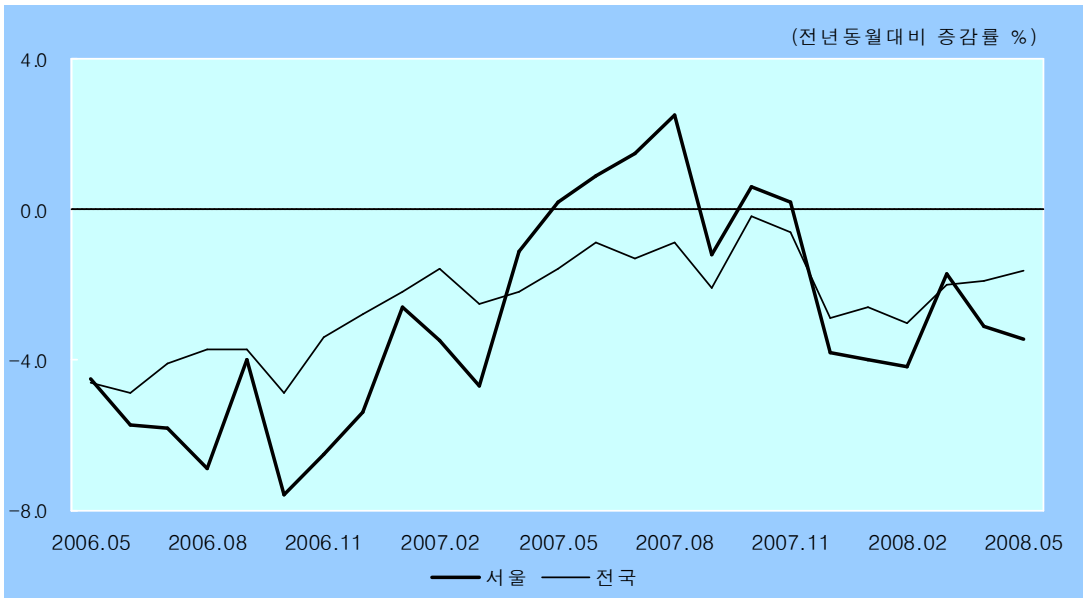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취업자	전국	1.2 (−1.0)	1.2 (−2.0)	1.0 (−1.3)	0.9 (−0.3)	0.8 (1.8)	0.8 (1.7)	0.8 (−0.2)
	서울	1.0 (−0.8)	0.1 (−1.3)	0.4 (−0.1)	0.3 (−1.0)	1.0 (1.5)	0.2 (0.3)	0.2 (−0.7)
	남자	0.6 (−0.9)	0.9 (−1.2)	1.1 (−0.2)	−0.3 (−0.9)	0.4 (1.5)	0.1 (1.2)	−1.6 (1.5)
	여자	1.6 (−0.6)	−0.8 (−1.4)	−0.5 (0.1)	1.1 (−1.1)	1.9 (1.5)	0.3 (2.5)	0.7 (2.7)
청년층 취업자	전국	−1.6 (−1.2)	−2.9 (−1.6)	−2.6 (2.5)	−3.0 (−2.5)	−2.0 (−1.2)	−1.9 (0.7)	3.2 (1.2)
	서울	0.2 (−1.7)	−3.8 (−3)	−4.0 (3.5)	−4.2 (−3.2)	−1.7 (0.5)	−3.1 (3.1)	−0.8 (3.6)
고령층 취업자	전국	6.6 (−3.3)	3.4 (−6.5)	3.0 (−4.3)	2.3 (0.4)	3.9 (5.2)	1.3 (5.0)	−3.4 (1.4)
	서울	8.0 (−0.9)	−0.5 (−2.8)	1.3 (−0.1)	0.1 (−1.7)	2.9 (2.5)	−0.9 (0.4)	1.5 (3.4)
	55−59세	4.2 (−2.2)	5.4 (−0.7)	7.2 (−0.5)	8.3 (0.0)	7.3 (1.9)	5.7 (0.9)	6.5 (3.0)
	60세 이상	11.2 (0.0)	−5.1 (−4.6)	−3.1 (−1.1)	−5.9 (−3.1)	−2.4 (5.4)	−5.9 (0.0)	−2.3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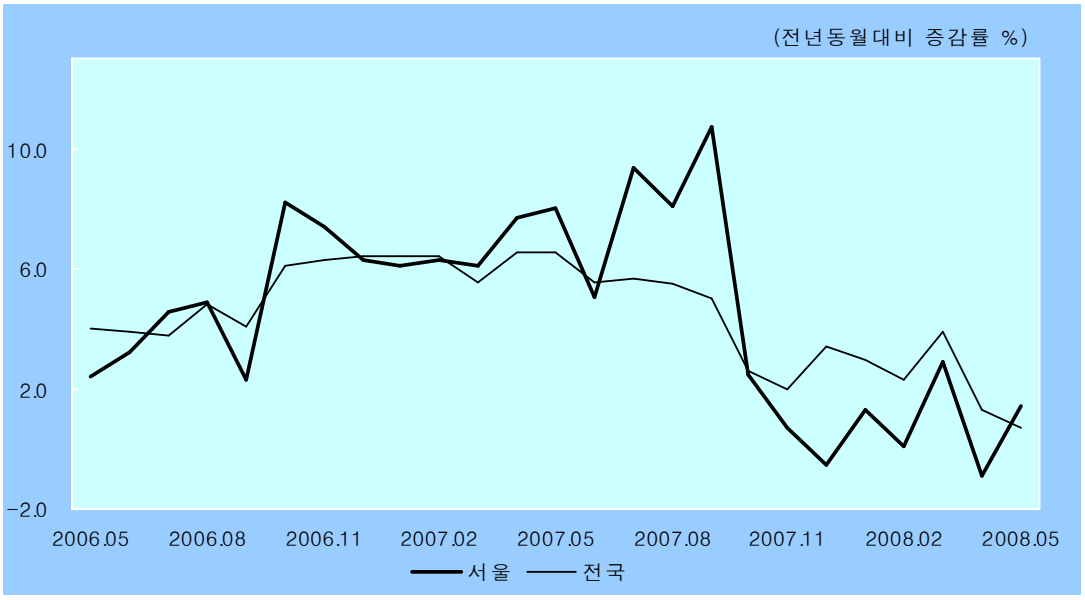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사는 증가

-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13.3%), 서비스·판매종사자 19천명(1.5%), 사무종사자 11천명(1.4%),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1천명(1.3%)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60천명(-4.2%)이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2천명(4.1%),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 종사자 11천명(0.8%), 사무종사자 7천명(0.8%),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1천명(0.7%)이 각각 증가하였고, 서비스·판매종사자 7천명(-0.6%)이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감소,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46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7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50천명(-3.8%)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41천명(1.1%)이 증가하였음
-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25.1%, 임금근로자 74.9%로 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25천명(-2.3%), 무급가족종사자는 25천명(-12.7%)이 각각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76천명(4.1%), 일용근로자 8천명(1.4%)이 각각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 43천명(-3.4%)이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비임금근로자 24천명(-1.9%)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 45천명(1.2%)이 증가하였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8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6천명(56.0%)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0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1천명(-8.0%)이 감소 하였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산업별	제조업	−7.0 (−0.5)	−8.0 (0.2)	−8.5 (0.3)	−9.6 (−4.4)	−1.0 (8.4)	−2.9 (0.4)	−3.0 (−0.7)
	SOC 및 기타서비스업	2.6 (1.1)	1.6 (−1.5)	2.1 (−0.1)	2.1 (−0.5)	1.5 (0.4)	0.8 (0.3)	0.3 (0.6)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8.8 (1.7)	4.7 (−1.0)	4.1 (−0.4)	2.5 (−1.4)	1.9 (1.1)	1.0 (0.6)	0.1 (0.8)
	도소매 · 음식숙박	−5.1 (−0.3)	−3 (2.0)	−1.3 (−0.7)	0.7 (−0.1)	0.9 (0.6)	1.0 (−1.6)	1.0 (−0.4)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4.1 (3.0)	2.4 (−6.8)	3.0 (2.0)	3.0 (−0.8)	5.0 (−2.3)	0.9 (1.4)	−0.1 (2.0)
	건설업	0.5 (0.1)	2.3 (−7.9)	3.1 (1.0)	4.0 (3.0)	−2.5 (0.5)	−1.1 (3.6)	−0.4 (0.8)
직업별	전문 · 기술 · 행정관리자	2.8 (0.5)	6.8 (1.1)	4.6 (−0.5)	1.4 (−2.4)	3.3 (1.9)	1.1 (−0.6)	1.3 (0.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5 (1.1)	−2.5 (−3.9)	−2.5 (−0.2)	−5.2 (−1.9)	−5.1 (1.4)	−3.8 (3.6)	−4.2 (0.8)
	서비스 · 판매종사자	0.7 (0.1)	−2.5 (−2.0)	1.8 (0.2)	5.5 (−0.3)	4.7 (2.1)	2.3 (−3.3)	1.5 (−0.6)
	사무종사자	2.9 (1.8)	−3.1 (−0.1)	−3.9 (0.6)	0.3 (2.1)	2.3 (0.1)	2.4 (2.3)	1.4 (0.8)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9 (0.9)	1.6 (−1.0)	0.9 (0.6)	0.4 (−1.5)	1.0 (0.8)	0.8 (1.5)	1.1 (1.2)
	비임금근로자	−1.2 (0.5)	−3.8 (−2.1)	−0.8 (−1.9)	0.2 (0.4)	1.2 (3.5)	−1.5 (−2.9)	−3.8 (−1.9)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업·률 |

5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

- 2008년 5월 실업자는 7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명(-3.3%)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명(-6.8%) 감소하였고, 여자는 2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3.9%)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4%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자는 2.5%로 전년동월대비 변동이 없었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음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40대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40대에서 상승한 반면, 15~29세 및 50세 이상에서는 하락하였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하락, 전월대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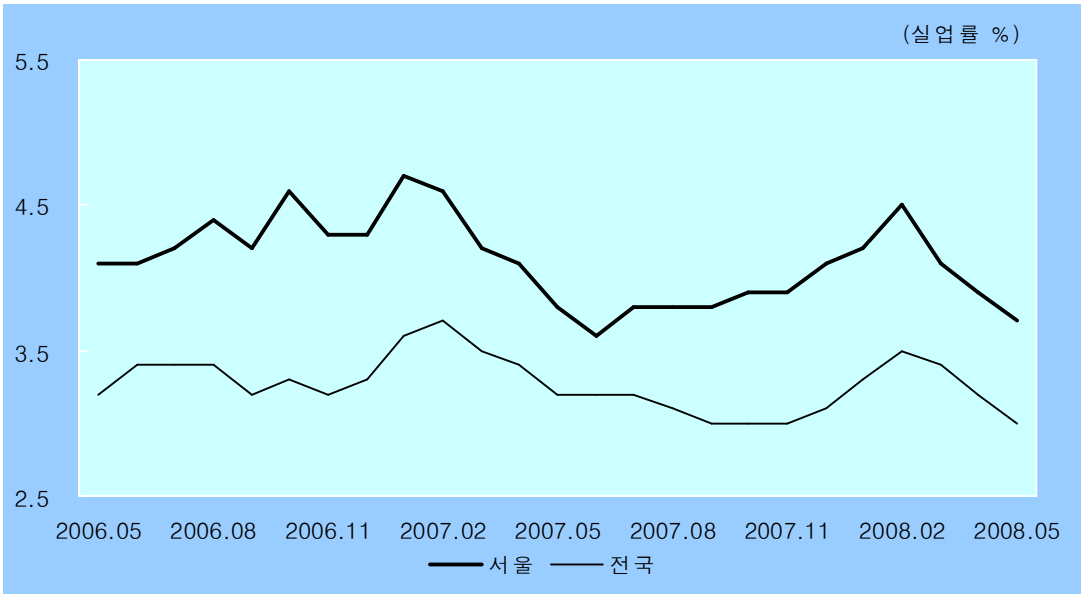
- 2008년 5월중 실업자는 191천명,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6천명(-3.0%), 실업률은 0.1%포인트 각각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19천명으로 4천명(-3.6%), 여자는 73천명으로 2천명(-2.2%)이 각각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남자, 여자 0.1%포인트 각각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 실업자는 8천명(-3.9%), 실업률은 0.2%포인트 각각 감소하였음
-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9천명(-7.0%)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1천명(1.8%)이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자는 0.3%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자는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음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3.2	3.1	3.3	3.5	3.4	3.2	3.0
서울		3.8	4.1	4.2	4.5	4.1	3.9	3.7
성별	남자	4.1	4.4	4.6	5.0	4.4	4.3	4.0
성별	여자	3.4	3.7	3.6	3.8	3.8	3.3	3.3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설·경·기 |

2008년 4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증가

■ 4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증가

- 4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7조 6,45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 감소됨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조 4,23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5.0%가 증가됨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8.6%를 차지함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4.5%가 감소하고, 민간부문에서는 60.5%가 증가함
- 공공부문은 신규주택 공사부분의 발주 감소가 원인이며, 민간부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 공사부문의 발주 증가가 원인이 됨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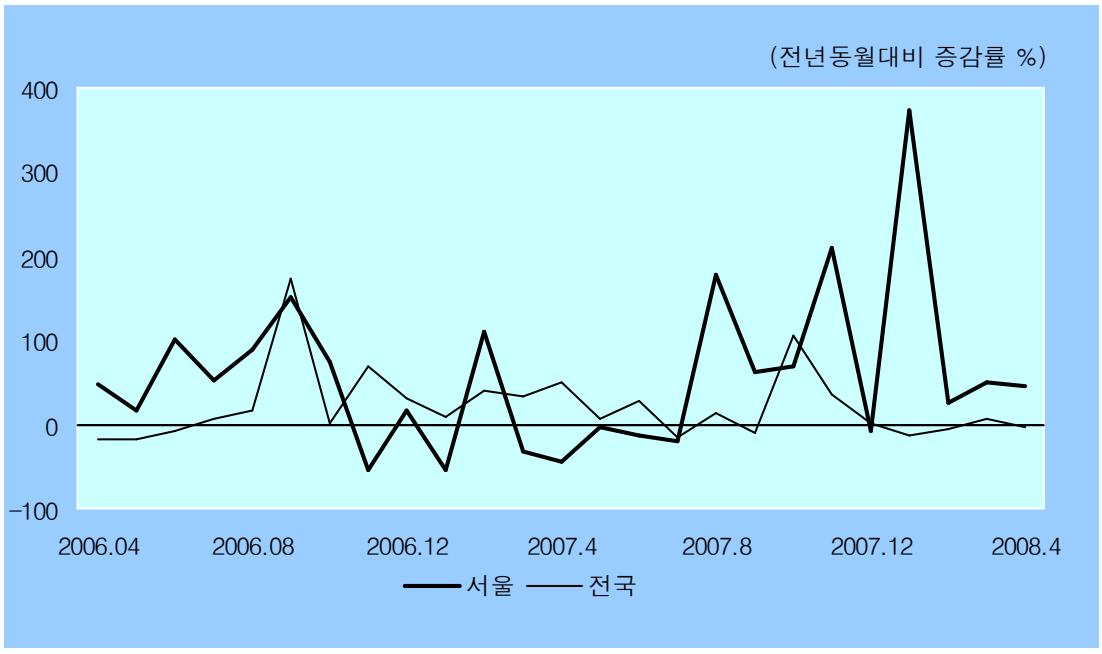
- 2008년 4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3,342.4천㎡로 전년동월대비 990.5% 증가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단독주택의 신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208% 증가하고, 연립주택은 -78.7% 감소, 아파트는 648.3% 증가함.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상업(2192.8%), 공업(79.2), 문교 및 사회(2879.2%)는 증가하고, 기타(-63.9%)는 감소하였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7,840.6	16,272	5,570	5,931	8,366	7,645	−2.5	−8.6
서울		981.2	1,581	1,997	1,078	1,139	1,423	45.0	24.9
발주자별	공공	178.7	226.2	63	88	232	135	−24.5	−41.8
	민간	802.5	1,349.6	1,933	990	889	1,288	60.5	44.9
공종별	건축	939.8	1,479.3	1,953	1,031	1,100	1,417	50.8	28.8
	토목	35.4	96.6	43	46	37	5	−85.9	−86.5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4월	11월	1월	2월	3월	4월		
서울		306.5	813.9	1,534.8	2,919.6	1,706.4	3,342.4	990.5	95.9
주거용	소계	95.5	29.5	130.6	252.9	49.0	95.1	−0.4	94.1
	단독	5.0	1.7	7.9	6.0	7.4	15.4	208.0	108.1
	연립	68.7	20.6	89.7	1.3	2.0	14.6	−78.7	630.0
	아파트	8.7	7.2	33.0	252.5	39.6	65.1	648.3	64.4
비주거용	소계	210.9	784.5	1,404.2	2,666.7	1,657.4	3,247.3	1439.7	95.9
	상업	103.3	696.6	872.2	1,862.2	1,036.7	2,368.5	2192.8	128.5
	공업	84.9	0.0	116.9	48.6	50.6	152.1	79.2	200.6
	문교/사회	22.6	87.2	361.0	738.9	502.3	673.3	2879.2	34.0
	기타	148	0.6	54.1	16.9	67.8	53.4	−63.9	−21.2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택·매·매·가·격 |

5월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큰 폭 완화

■ 5월 기준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월대비 완화

- 5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을 주도하던 서울 강북지역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전국 주택의 전월대비 상승률도 0.6%로 완화됨
- 전국 142개 시·군·구 대상지역 중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104개 지역이고 보합인 지역은 23개 지역, 하락한 지역은 15개 지역으로 주택매매가격 상승 지역이 많음

■ 5월 기준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완화

- 서울은 전월대비 0.9% 상승한 가운데 강북지역은 전월(2.4%)에 비해 상승폭이 큰 폭으로 완화된 1.1% 상승으로 나타났고, 강남지역도 상승폭이 다소 완화된 0.6% 상승함
- 강북지역에서는 노원구가 2.0% 상승으로 상승폭이 전월(5.9%)대비 크게 둔화되었고, 서대문구(1.4%)는 가재울 뉴타운 이주수요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강남지역에서는 금천구가 도화부대 이전 등 지역개발 호재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로 1.6% 상승하였고, 강서구는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저평가 지역에 대한 수요 증가로 1.6% 상승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월	4월	5월	
전국		98.5	102.2	102.9	4.5
서울		97.3	104.5	105.4	8.3
아파트		98.5	104.4	105.3	6.9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5.8	106.7	107.9	12.6
	강남	98.8	102.4	103.0	4.3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노원구, 서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 강북 지역은 전월에 비해 주택매매가격이 1.1%가 상승, 기존의 상승폭은 하락하였음
- 노원구는 전월대비 2.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대문구는 1.4%, 중랑구는 1.3%, 도봉구 1.3%의 순서로 상승률이 높았음
- 은평구(0.8%), 광진구·동대문구·마포구(0.7%)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하였음
- 종로구·중구는 강북지역 상승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6% 사승률을 보였고, 성동구·용산구는 0.4% 상승률을 나타내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금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 강남 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상승률(0.6%)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9%)을 하회하고 있음
- 금천구·강서구(1.6%)는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고, 구로구(1.0%)와 관악구(0.8%)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송파구(0.2%), 강동구(0.1%)는 강남 지역 상승률(0.6%)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보였고, 특히 서초구는 상승률이 0.0%로 나타났음

■ 5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둔화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8% 상승하는데 그쳐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음
- 강북은 1.4%, 강남은 0.4% 상승하였고, 강남 지역의 상승폭 둔화가 두드러짐
- 중랑구(2.6%), 노원구·금천구(2.0%), 강북구(1.8%)의 순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종로구·양천구(0.0%)는 정체된 상태로 나타났고, 송파구(-0.6%), 강동구(-0.2%), 서초구(-0.1%)는 매매가격이 감소되고 있었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매매가격은 1,822만원이며, 이를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499만원), 서초구(2,743만원), 용산구(2,524만원), 송파구(2,482만원), 양천구(2,056만원), 강동구(1,882만원), 광진구(1,869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통계 생성 기준인 2008년 5월 30일 현재 금천구(996만원)가 유일함

| 주·택·전·세·가·격 |

5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상승세 완화로 안정

■ 5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는 전월대비 감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이 마무리 되면서 전월대비 0.3%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국지적인 급등지역도 크게 감소함

■ 5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상승세 완화로 안정

- 5월 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0.4% 상승으로 전월에 비해 안정된 가운데 강북지역이 0.4%, 강남지역이 0.3% 상승하며 강북지역의 상승세가 크게 완화됨
- 강북 지역에서는 서대문구가 매매가격 상승과 더불어 가재울 뉴타운 이주 수요 증가로 0.8% 상승하였고, 강북구는 드림랜드 공원화 및 경전철 계획 등 지역개발 호재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로 0.6% 상승함
- 강남 지역은 강서구(0.7%)가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전세 물량이 소진되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송파구(0.7%)는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한 전세물량 부족으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월	4월	5월	
전국		99.0	101.7	102.0	3.0
서울		98.5	102.7	103.1	4.7
아파트		99.9	101.8	102.0	2.1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7.5	103.7	104.1	6.8
	강남	99.4	101.7	102.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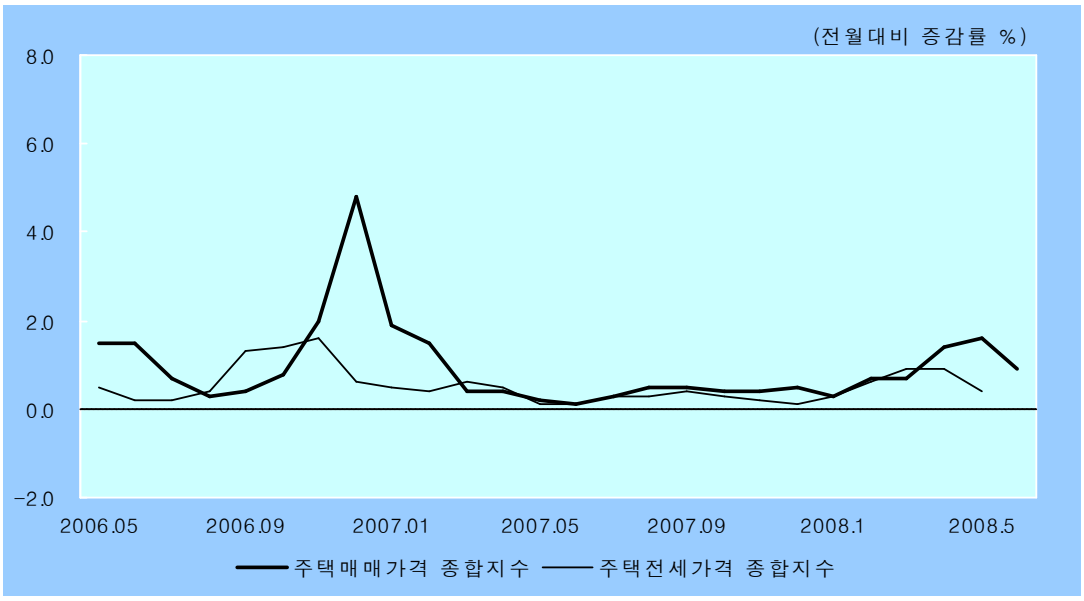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서대문구, 강서구, 송파구, 강북구,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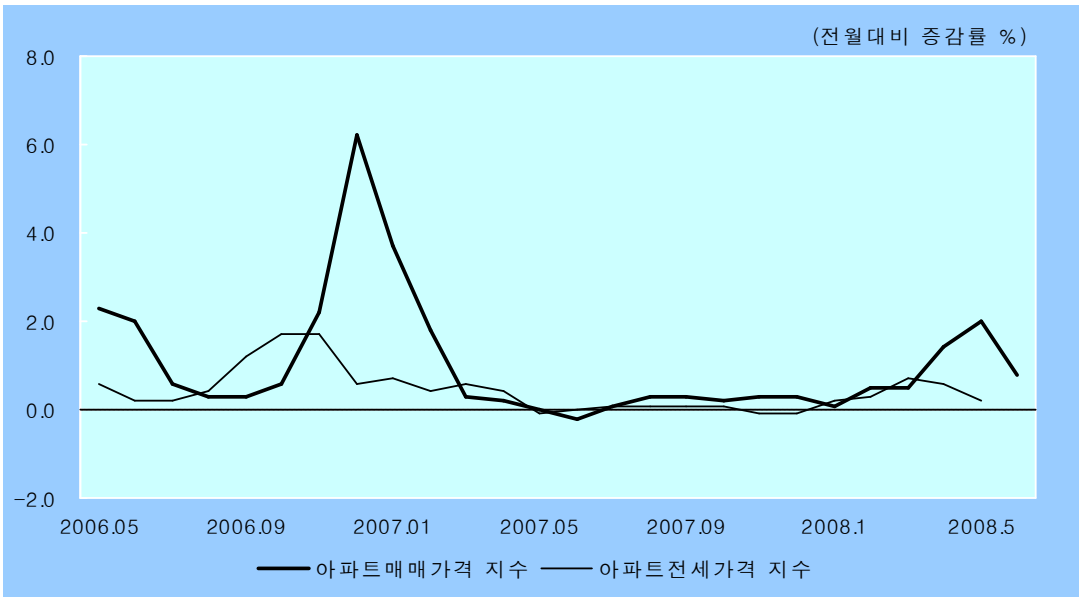
- 강남·북에서 서대문구가 0.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서 강서구·송파구·강북구·중구·동대문구가 0.6% 상승률을 보였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하락이 지속되어 39.8%까지 도달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6년 11월 45% 미만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2008년 5월 현재 39.8%까지 하락해 40%대 수준도 유지하지 못했음
- 2008년 5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에 비해 0.5% 하락하였음
- 서울은 전국 평균 53.1%를 13.31%p 밑돌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12월: 11.8%p, 1월: 12.0%p, 2월: 12.1%p, 3월: 12.4%p, 4월: 13.1%p)는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3.3%, 강남은 36.9% 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6.4%이며, 강남·북간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2월: 9.6%p, 3월: 8.7%p, 4월: 7.1%p)
- 강남·북간 비율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강북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세가격은 안정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중·자·금·사·정 |

5월 국고채 유통수익률 대폭 상승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대폭 상승

- 5월 중 국고채(3년)유통수익률은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 등으로 대폭 상승함
  (4월말 4.88% → 5월말 5.46% → 6.10일 5.78%, 4월말 대비 +90bp)

■ CD(91일) 유통수익률은 횡보

- CD 유통수익률은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5.36%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음
  (4월말 5.36% → 5.26일 5.37% → 5월말 5.36% → 6.10일 5.36%)

■ 5월 기준 장·단기 금리차 소폭 확대

- 4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0.42%p로 국고채(3년)의 대폭 상승한데 비해 CD 유통수익률은 큰 변동없이 횡보를 거듭하고 있어 격차가 확대됨

■ 5월 기준 KOSPI 지수 조정 국면 진입

- KOSPI 지수는 5.16일 연중 최고치(1,889p)를 기록한 이후 고유가 부담 등으로 조정 국면
  (4월말 1,825p → 5.16일 1,889p → 5월말 1,852p → 6.10일 1,774p, 4월말 대비 -2.8%)

■ 5월중 외국인 투자자는 소폭 순매수로 전환, 기관 투자자는 순매도로 전환

- 5월중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 저평가 인식으로 2007. 5월 이후 처음으로 소곡 순매수로 전환
- 기관투자가는 고유가 등에 따른 경제전망 불확실성 증대로 순매도로 전환
  · 외 국 인: 08.3월 -2.4조원 → 4월 -1.0조원 → 5월 +0.9조원
  · 기관투자가: 08.3월 +1.6조원 → 4월 +1.2조원 → 5월 -0.8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금리	국고채(3년)	5.17	5.44	4.97	5.10	4.88	5.46	11.89
	CD(91일물)	5.06	5.81	5.18	5.38	5.36	5.36	0.00
	콜금리(1일)	4.56	4.99	4.97	4.97	4.99	4.97	−0.40
	장·단기 금리차[1]	0.61	−0.37	−0.21	−0.28	−0.48	0.42	−187.50
주가	KOSPI[2]	1,700.9	1,732.3	1,689.5	1,651.1	1,776.6	1,846.8	3.95
	KOSDAQ[2]	747.9	667.1	647.4	627.5	647.8	649.5	0.26
환율 (₩/US$)[2]		929.9	942.4	944.7	982.5	987.2	1,038.2	5.16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5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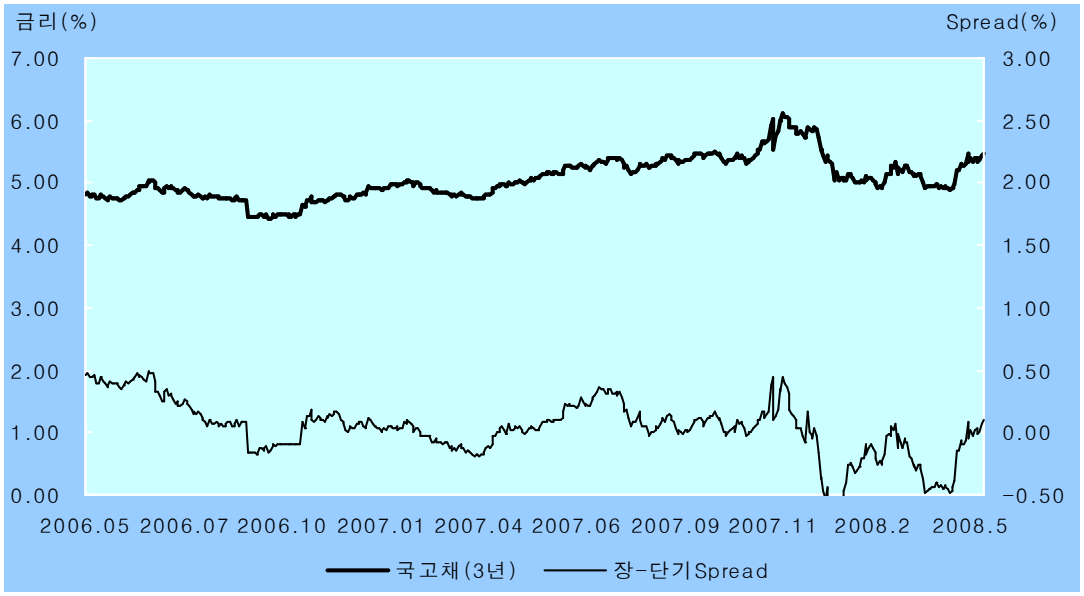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
  (4월 +3.4조원 → 5월 +2.7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의 2.4조원 증가에서 1.5조원 증가로 증가폭이 축소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주로 5월의 계절적 요인(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으로 전월보다 소폭 늘어난 1.2조원 증가함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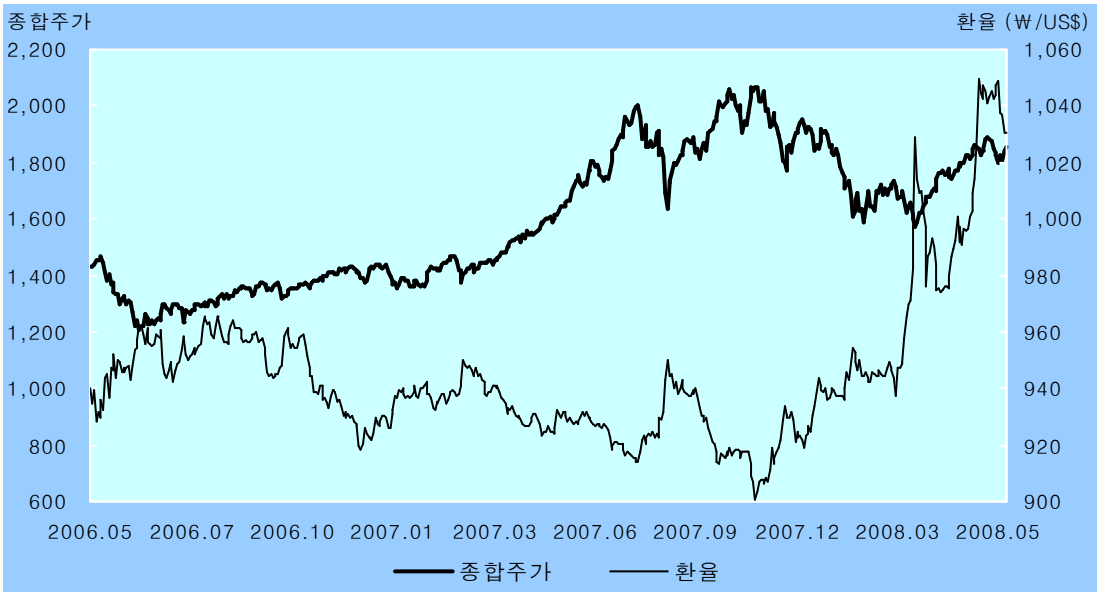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월말잔액 2008년		전 월비
	연중	1월	2월	3월	4월	5월	4월	5월	
가계대출[1]	17.8	−0.7	2.3	2.4	3.4	2.7	370.8	373.6	0.76
주택담보대출[2]	4.6	0.8	0.8	1.0	2.4	1.5	226.6	228.1	0.66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0	−1.5	1.5	1.4	1.0	1.2	142.4	143.6	0.84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4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소폭 증가

- 4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116조 339억원으로, 전월대비 18조 1,470억원이 증가함
- 4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8조 5,678억원이 증가한 451조 6,922억원 규모로 나타났음

〈표〉 서울시 금융기관[1]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액
		4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예금은행	728,294.8	815,649.1	822,528.9	833,537.3	849,091.3	1.9
	비은행기관	227,610.5	257,924.6	258,043.2	264,349.6	266,942.6	1.0
	합계	955,905.3	1,073,573.7	1,080,572.1	1,097,886.9	1,116,033.9	1.7
서울	예금은행	301,454.8	350,225.9	352,812.4	358,932.4	367,426.6	2.4
	비은행기관	67,710.3	81,683.0	80,187.3	84,192	84,265.6	0.1
	합계	369,165.1	431,908.9	432,999.7	443,124.4	451,692.2	1.9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4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하락

- 서울의 4월 중 자금 지역환류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3월보다 -0.7%p 하락한 58.8%를 기록함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서울의 예대율 하락폭과 같은 -0.7%p를 기록하였음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1] 추이

(단위 : %, %p)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율
	4월	1월	2월	3월	4월	
전 국	85.0	86.9	86.8	88.0	87.3	-0.79
서 울	56.4	58.6	58.7	59.5	58.8	-1.18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업·동·향 |

4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 대비 증가

- 4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790개로 전년동월 대비 4.7%(214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은 상승세(3.1%)를 회복하였으며, 서비스업은 2개월만에 상승(2.7%), 건설업은 3개월만에 상승세를 회복(13.1%)하였음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3.6%, 제조업 19.6%, 건설 및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4.8%

■ 서울 전년동월대비 신설법인 수 감소

- 4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87개로, 전월대비는 1.1%(18개)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4.4%(77개) 감소하였음

■ 서울 서비스업의 신설법인 수 대폭 감소

- 서울의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신설법인수가 -143개 감소하여 타 산업에 비해 감소폭이 매우 컸음
- 건설 및 설비업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은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576	5,298	3,829	4,670	4,790	120	2.6	214	4.7
서울	1,764	1,875	1,399	1,669	1,687	18	1.1	-77	-4.4
서비스업	1,495	1,570	1,185	1,374	1,352	-22	-1.6	-143	-9.6
제조업	140	127	108	101	145	44	43.6	5	3.6
건설 및 설비업	128	177	106	189	187	-2	-1.1	59	46.1

자료: 중소기업청

| 어·음·부·도·율 |

서울 어음부도율 소폭 하락

■ 전국 어음부도율 소폭 하락

- 5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4%로 전월(0.06%)보다 -0.02%p 하락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02개로, 전월(234개) 보다 32개 감소함
-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늘어난 가운데 서비스업·건설업이 비교적 크게 증가(각각 +25개, +19개)

■ 서울 어음부도율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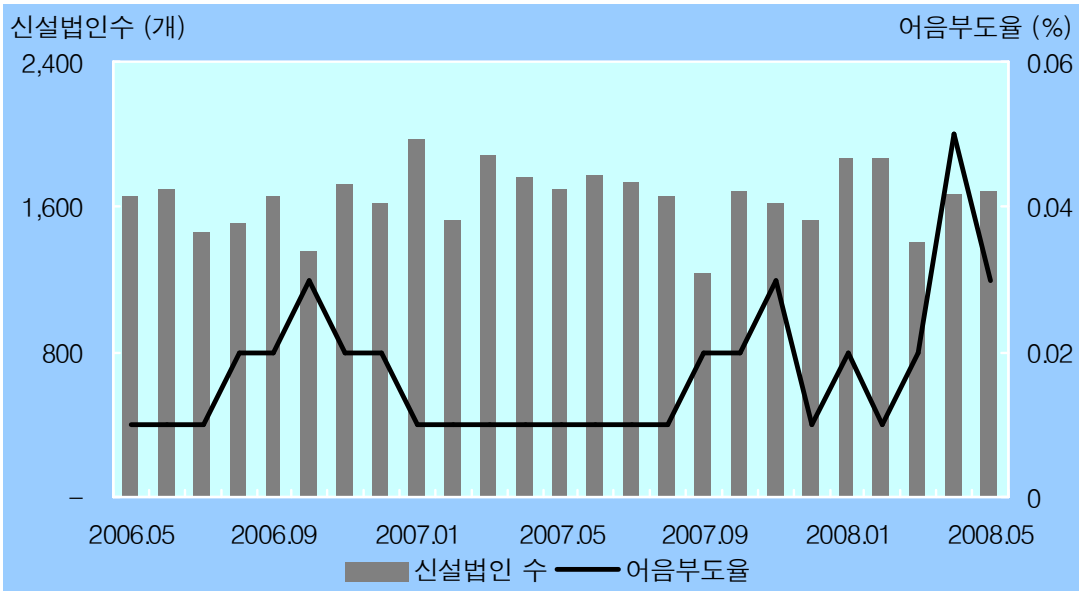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 0.05% 보다 -0.02%p 하락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75개로 전월보다 4개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27개로 28개 감소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2	0.03	0.06	0.04	-0.02	-33.3	0.02	100.0
	부도업체 수	197	186	176	234	202	-32	-13.7	5	2.5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1	0.02	0.05	0.03	-0.02	-40.0	0.02	200.0
	부도업체 수	55	66	72	79	75	-4	-5.1	20	36.4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Ⅰ 신·용·보·증·동·향 Ⅰ

소상공인의 보증 비중 증가

■ 신용보증 공급의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5월중 3,109건, 53,541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122.7%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2.2% 감소함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시행(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따라 건당 평균금액은 22백만원 감소하였으나 보증 건수가 대폭 증가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3,111	597	983	1,319	1,396	3,109	1,713	122.7	-2	-0.1
금액	57,591	17,926	32,211	52,566	54,741	53,541	-1,200	-2.2	-4,050	-7.0
건당평균금액	18.5	30.0	32.8	39.9	39.2	17.2	-22.0	-56.1	-1.3	-7.0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음식·숙박업의 비중(금액기준) 증가

- 5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음식·숙박업의 비중(금액기준)이 6.6%p 증가하여 18.4%를 나타낸 반면 기타업종의 비중(금액기준)이 4.4%p 감소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268	1,239	677	742	183	3,109
비율	8.6	39.8	21.8	23.9	5.9	100
금액	6,688	21,307	9,842	10,941	4,763	53,541
비율	12.5	39.8	18.4	20.4	8.9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증가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14.6%p 증가하여 83.2%를 나타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8.03	2008.04	2008.05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207	1,227	2,974	1,747
	비율	91.5	87.9	95.6	7.7
	금액	38,974	37,584	44,524	6,940
	비율	74.2	68.6	83.2	14.6
소기업	건수	86	134	111	-23
	비율	6.5	9.6	3.6	-6.0
	금액	9,010	12,136	6,907	-5,229
	비율	17.1	22.2	12.9	-9.3
중기업	건수	26	35	24	-11
	비율	2.0	2.5	0.8	-1.7
	금액	4,582	5,021	2,110	-2,911
	비율	8.7	9.2	3.9	-5.3
합계	건수	1,319	1,396	3,109	1,713
	비율	100	100	100	0
	금액	52,566	54,741	53,541	-1,200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수·출·입·동·향 |

서울의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전국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

- 5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7.2% 증가한 394.9억달러, 수입은 28.8% 증가한 384.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0.4억달러 흑자로 전환됨
- 주력품목 수출호조세와 고유가에 따른 원유 수입액 증가로 수출, 수입 모두 상승세를 나타냄
- 품목별로 석유제품(수요증가 및 단가상승), 선박류(조선산업 호황), 무선통신기기(3G제품을 중심으로 수요 증대), 철강제품(중동·동남아 수요 강세), 일반기계(중국·신흥시장 수요 지속)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함
- 특히 LNG선(1억달러 상회) 7척 등의 고가선박과 경유 등 석유제품의 수출호조가 눈에 띔

■ 전국 수입 중 원자재는 큰 폭의 증가세

- 수입 가운데 원자재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85%) 등 에너지와 철강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큰 폭의 증가세
- 자본재는 안정적인 수입증가세(21.4%)로 무선통신기기부품(106%), 액정디바이스(61%) 등이 증가, 반도체제조용장비(△40%), 광학기기부품(△14%) 등은 감소
- 소비재는 소폭 증가세(14.7%)이며, 농산물(41%), 승용차(29%) 등이 증가함

■ 5월 기준 서울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정밀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 컴퓨터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31.0% 증가함

■ 5월 기준 서울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은 LPG의 수입의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반도체와 철강판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LGP는 석유제품(30.4%)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수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분간 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1,040	32,323	31,157	36,046	37,843	39,389	8,349	26.9	1,546	4.1
	수입	29,857	36,109	32,406	36,863	38,038	38,469	8,612	28.8	431	1.1
서울	수출	2,278	2,905	2,934	2,761	3,185	2,985	707	31.0	-200	-6.3
	수입	5,979	7,380	6,437	7,431	8,217	7,724	1,745	29.2	-493	-6.0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5월		2007년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203,746	9.1	186,788	4.7
2	반도체	189,184	17.3	161,285	-9.9
3	무선통신기기	154,300	97.4	78,150	-10.1
4	자동차부품	153,606	64.5	93,378	3.8
5	고무제품	123,281	19.6	103,085	12.4
6	컴퓨터	118,869	94.3	61,186	-24.6
7	합성수지	111,132	6.2	104,674	23.2
8	의류	96,781	-15.6	114,680	-21.4
9	인조장섬유직물	90,866	7.2	84,750	23.6
10	정밀화학원료	87,008	302.7	21,608	-25.5
합계		1,328,773	602.7	1,009,584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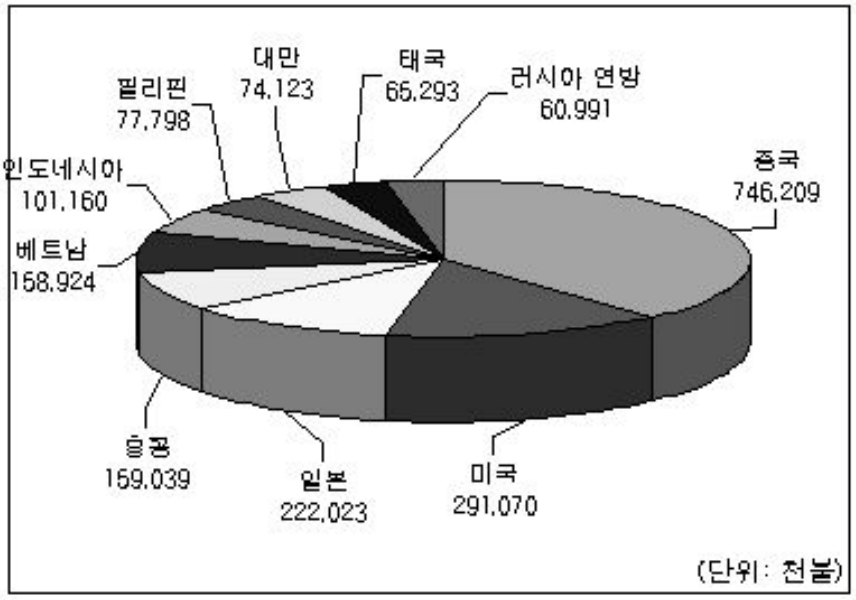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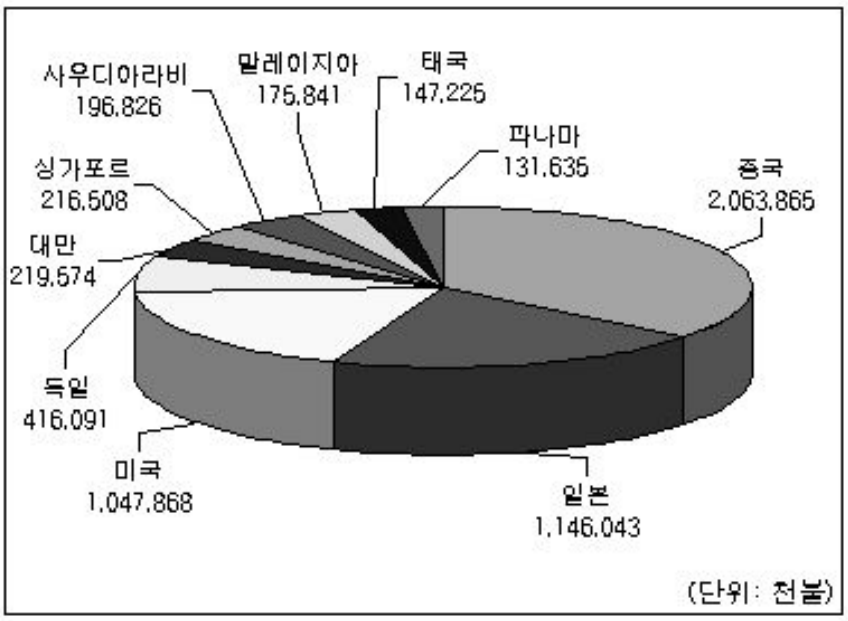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5월		2007년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44,904	109.8	355,072	5.1
2	컴퓨터	406,180	20.3	337,559	-20.2
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97,030	-1.8	302,625	170.7
4	항공기및부품	242,784	7.1	226,766	0.6
5	석유제품	221,993	30.4	170,192	60
6	자동차	209,499	-5.5	221,621	-1.7
7	의류	206,614	0.1	206,319	4.6
8	철강판	197,077	57.8	124,905	99.8
9	LPG	188,756	662,829.2	28	-
10	동제품	162,863	0.3	162,409	184
합계		2,877,700	663,047.7	2,107,496	502.9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